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이해 및 지도방법

LESSON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정의와 인간 존엄성 실현

LESSON 2.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결 방안,
세계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정의와 인간 존엄성 실현

1) 인권의 의미와 변화양상

통합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은 “인권은 어떻게 확장되어왔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핵심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3가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취기준은 [10통사04-01] ‘근대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재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입니다. 첫 번째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해보았습니다.

Q)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립되어 왔을까?

Q)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은 무엇일까?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첫 번째 질문 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립되어 왔을까요? 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에서 천부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일정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항구성을 지닙니다.

| 인권의 의미 |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당연하였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이 이어져왔습니다. 인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립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

								
<p>마그나카르타 (1255)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문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가 되었다.</p>	<p>영국 명예혁명 (1688) 의회의 권리를 강조한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p>	<p>미국독립선언 (1776) 미국에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1776년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p>	<p>프랑스혁명 (1789)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구체제에 분노한 평민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p>	<p>차티스트 운동 (19세기 중엽) 영국의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통해 선거권 확대, 비밀투표 등을 요구하였다.</p>	<p>바이마르 헌법 (1919)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된 민주주의 헌법으로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사회권을 명시하였다.</p>	<p>여성참정권운동 (20세기 초)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 확대운동이 전개되었다.</p>	<p>세계인권선언 (1948)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국제연합(UN)에서 세계평화와 인군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포괄적인 인군문서로 수많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되었다.</p>	<p>인종차별철폐협약 (196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여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허용하거나 두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p>

(2) 현대사회의 인권

두 번째 질문 ”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은 무엇일까?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권이 어떻게 확장되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권보장의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여 세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보장된 1세대 인권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반면 2세대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2세대 인권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하였으며 세계 인권 선언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3세대 인권은 인종차별, 국가 간 빈부격차 등으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입니다.

| 인권의 확장 |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의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결권: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평화에 관한 권리 ·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출처 : 카렐바작(Vasak, k)의 인권 3세대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인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새롭게 주목받는 인권 |

			
<p>환경권 미세먼지, 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가 중요한 인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p>	<p>주거권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해지고 각종 개발 사업이나 주거비의 증가 등으로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p>	<p>안전권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의미한다.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타인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시설 등의 마련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p>	<p>문화권 문화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에 따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이다.</p>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점차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영역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고민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2)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두 번째 성취기준은 [10통사04-02]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의식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입니다. 첫 번째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해보았습니다.

Q) 인권과 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Q) 시민참여는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첫 번째 질문 ” 인권과 헌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인권과 헌법의 관계 |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며, 그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인권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이므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근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의 기본권 |

평등권(가)	자유권(다)	참정권(라)	사회권(마)	청구권(나)
평등권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권리로서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2) 정의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두 번째 질문 ” 시민참여는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투철한 준법의식을 갖고 법을 준수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정책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감시가 없으면 정책 결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권리와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이나 사회의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시민참여라고 합니다.

시민 참여의 유형으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집단 활동,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활동, 국가 기관이나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 자원봉사 활동, 1인 시위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시민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의와 인간존엄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파란부분의 개념이 나오면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이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의를 훼손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 간디의 시민의 불복종 |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통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헨리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중반 자신의 세금이 노예 제도나 전쟁과 같이 인권과 정의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납세 거부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양심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행위를 일컬어 말합니다.



|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 홍콩의 우산혁명, 마틴루터킹의 흑인인권운동 |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	홍콩의 우산혁명	마틴루터킹의 흑인 인권 운동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 홍콩의우산혁명, 마틴루터킹의 흑인인권운동 같은 사례처럼 시민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켜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위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무엇일까요?

|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

공익성, 비폭력성, 불복종에 대한 처벌감수, 최후의 수단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공익성은 시민불복종이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폭력성은 시민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에 대한 처벌감수는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은 시민불복종이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 최후의 수단 |



지식채널e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러셀 프리드먼(Freedman, R)
<그들은 자유를 위해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처럼 시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복종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과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정의와 인권 존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결 방안, 세계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1) 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성취 기준 “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에서는 다음의 2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누구이며 왜 차별받는가?

-세계 인권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1)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첫 번째 질문 “사회적 소수자는 누구이며 왜 차별받는가?”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그림 RICH PICTURE (그림 그리기를 통해 숨겨진 이슈를 표현하는 도구)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제시된 그림은 인권에 대한 배움에 앞서 학생들의 인식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의 생김새, 사회적 소수자들의 종류를 열거하여 그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 |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사회의 주류 집단과 성, 인종, 장애, 종교,

국적, 사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 내 해당 구성원의 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집단에 비해 그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상황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 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소수자 인지 여부 |

식별가능성, 권력적 열세, 연대의식,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은 이동 등 일상활동에서 불편을 겪거나 교육 및 취업에서 차별을 겪기도 하고 결혼 이민자는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을 두어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 보호 캠페인 시행, 인권 교육강화, 인권 보호 활동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인권 감수성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인권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과 공감능력을 가리킵니다.

성취 기준:[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세계인권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세계 인권문제 |



교사: 앞서 이야기 했던 어둠속의 대화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둠속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누가 사회적소수자 일까요?

학생: 우리요.

학생: 비장애인이요

교사: 네 맞아요. 어둠속에서 시각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어둠은 시각장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지요. 즉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소수자는 상황에 따라 상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 자, 그럼 선생님과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할게요. 책은 구정화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인권에세이>에서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교사: 각자 제시된 활동지의 글을 읽고 묻는 문장에 답변해주세요.

|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사회적 소수자인가? |

#1.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사회적 소수자인가?

<어둠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서 100분간 숲, 시장, 카페 등으로 꾸며진 공간을 돌아다니며 어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빛을 발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지팡이 하나를 내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깐요. 평소 우리는 어둠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불을 끈다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전시장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둠속의 대화> 전시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점은 빛이 없다는 것뿐인데 그 한 가지 다른 점 때문에 전혀 낯선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에 의지하게 되고, 함께 가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시각 장애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조명 시설이 아니라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서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일 것입니다. 조명으로 빛이 충분히 제공되는 공간은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런데 <어둠속의 대화> 공간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전시를 따라가는 100분 동안에는 오히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끌어나가는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는 한번에 8명이 입장할 수 있고, 이들을 이끄는 안내자는 단1명입니다. 8명 가운데 1명, 그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소수임에도 그는 주류로서 공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회적 소수자인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상황이지요.

교사: 글을 천천히 정독하고 가장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쳐 보세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소수임에도 그는 주류로서 공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교사: 또 다른 학생 이야기 해볼까요

학생: “과연 ‘누가 사회적 소수자인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상황이지요.” 입니다

교사: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었네요. 선생님도 인상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를 읽고 같이 생각해볼게요.

| 어떤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나? |

#2. 어떤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나?

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성별, 나이, 경제력, 인종 및 종족, 성적 취향 등에서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닌 집단이지요.

어느 학자는 사회적 소수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구별되며 불평등한 처우를 받도록 끼집어내진 사람들이면서,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말 그대로 ‘끼집어내진 사람들’ 이기에 이들은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의 정의를 볼까요.

“인간 사회에 부여된 질서에는 정돈되고 절제된 순수의 상징체계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위험하고 오염된 상징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때의 오염된 상징체계를 갖는 타자.”

어려운 표현이지요? 쉽게 말하면 사회는 정상인 집단과 아닌 집단을 구분하는데, 소수자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주체가 바로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장애인도 비정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상인-장애인’ 이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여의사’, ‘작가-여류작가’ 도 정상과 비정상 또는 중심과 부수적인 상태의 분류를 따르는 셈입니다. ‘남자’ 를 정상의 범주에 두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데서 사회적 소수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정상이라고 상정하고 자신들과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비정상이나 부수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소수자는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인 대우, 소수자 집단의 연대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식별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겉모습이나 문화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사는 이슬람교인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 같은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되겠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둘째, 권력의 열세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모두 말합니다. 국회의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정치적 권력은 차이가 나지요. 대기업 회장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제적 권력은 큰 차이가 납니다. 매우 유명한 문화계나 예술계 인가들은 무명인사에 비해 문화적으로 큰 권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열세란 단지 그 수가 적은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백인우월주의 정책을 쓰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수의 백인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다수의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수로 권력의 열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차별적인 대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남녀 직원을 모두 뽑아놓고 여성은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게 규정해두었다고 합시다. 명백한 차별적인 대우지요.

다행히 오늘날 한국에 이런 회사는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아예 여성은 뽑지 않거나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군필’ 이라고 하여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 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차별적인 대우입니다.

넷째, 소수자 집단의 연대의식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안부할머니의 경우를 봅시다.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고 사셨지만, 요즘은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함께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연대의식을 갖고 모여 함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지요.

연대의식은 스스로 인식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차별이 워낙 심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사회적 소수자로 다양한 집단을 꼽습니다.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죄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북한이탈주민, 불안정노동자(비정규직과 파견직), 실업자, 결혼이주민, 미혼모, 이들 모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합니다.

교사: 글을 천천히 정독하고 새롭게 안 사실을 정리해볼까요?

학생: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구별되며 불평등한 처우를 받도록 꼬집어내진 사람들이면서,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말 그대로 ‘꼬집어내진 사람들’ 이기에 이들은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교사: 또 이야기해 볼 학생 있나요?

학생: ” 정상인-장애인’ 이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교사: 여러분들이 각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내면화 하면서 그럼 다음 파트를 같이 읽어볼까요.

| 나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

#3. 나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이들만 사회적 소수자는 아닙니다. 누구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봅시다. 이들은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노동환경에서나 일상적인 삶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이주노동자의 고국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아서 한국에서는 적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사회에서는 아니라 해도,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예인은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이 매우 동경하는 직업입니다. 모든 연예인이 그렇지는 않아도 인기 있는 연예인은 수입도 많고 인지도도 높지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장관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도시를 떠나 제주도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가수 이효리의 삶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효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한 여배우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연예인이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인기를 누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은 조선 시대에는 광대였습니다.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지요. 광대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정치인보다 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웬만한 기업가보다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사는 사회에 따라 다르게 꼬집어내지고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특정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내가 이주민과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어간 특정 종교로 개정하거나 하면 나도 사회적 소수자가 됩니다. 또한 외모, 학벌, 직업 같은 조건 때문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누군가를 비정상이나 부수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사: 글을 천천히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이야기해볼 학생 있나요?

학생: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사는 사회에 따라 다르게 꼬집어내지고 만들어집니다. “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특정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차별방지법과 같은 제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해 전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중이던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는데요. 청소년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생각해봐야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청소년 노동 문제는 여러분에게 특히 더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청소년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관련 청소년 노동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접근해보겠습니다.

지식채널e ‘너의 잘못이 아니야’ (https://www.youtube.com/watch?v=6wiSF_pEQgY)

| 학생활동지 |

1. 청소년 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나요? 부당한 대우를 노동 경험이 이야기해 보자.

(모둠원끼리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 1) 사장님에게 이유 없는 폭언을 들었어요
- 2)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3)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요
- 4) 계약 할 때 와 다르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2.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1)노동법, 노동3권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2)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처한 상황일 이해해주는 또래 노동상담가가 필요해요
 - 3)청소년 노동법 위반에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과 신분, 학교가 알려지는 것이예요. 익명을 보장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수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앱을 연동시킨 신고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 활동지1번은 모둠원끼리 진솔하게 터 놓은 시간을 갖으며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활동지2번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한 개의 해결방안을 내 놓아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발표를 해볼게요.

학생: (토론을 진행한다.)

교사: 발표해볼 모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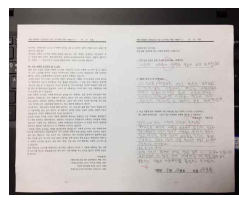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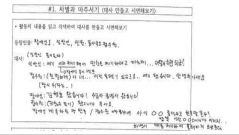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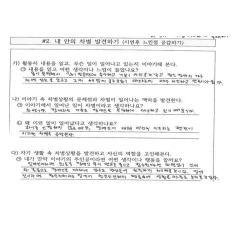
학생: 저희 모둠이 발표해보겠습니다.

고용주의 폭언,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례의 경험담이 오고 갔습니다. 청소년 노동법 위반에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과 신분, 학교가 알려지는 것이예요. 익명을 보장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수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앱을 연동시킨 신고앱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사: 해결방안이 구체적이네요. 꼭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수업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 참고 자료 |

학습 경험	[핵심질문] 사회적 소수자는 누구인가?	
	[비주얼씹킹] ‘사회적 소수자로 리치픽처’ 만들기 • ebs 지식채널e ‘차별의 발견’ 시청 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발견하고 마주하기 •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주제로 문제제기를 하여 차별주제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줌. • 모둠별로 ‘차별의 꽃’ 제작함.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이고 왜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	
	[핵심질문] 국내·외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책 토론/ 하브루타] 질문 만들고 답하기 • 제시된 <청소년을 위한 인권에세이>책 활동지를 보고 학생들끼리 작성후 이야기하기 • 모둠별로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생각을 심도있게 이야기 하고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핵심질문] 국내·외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인권감수성수업] 한컷 시나리오 작업 및 재연을 통해 감수성 수업을 발현함. EBS 지식채널e 너 그거 알아?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동기 유발을 함. 인권감수성 수업: 청소년노동, 지역, 학력, 인종, 국적 등 국내외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 ‘한컷 시나리오’로 작성함. 간단한 대본 리딩 후 이를 실감나게 재연해봄. 재연 후 시연한 학생들의 진솔한 느낌과 시연을 지켜본 학생들의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 하고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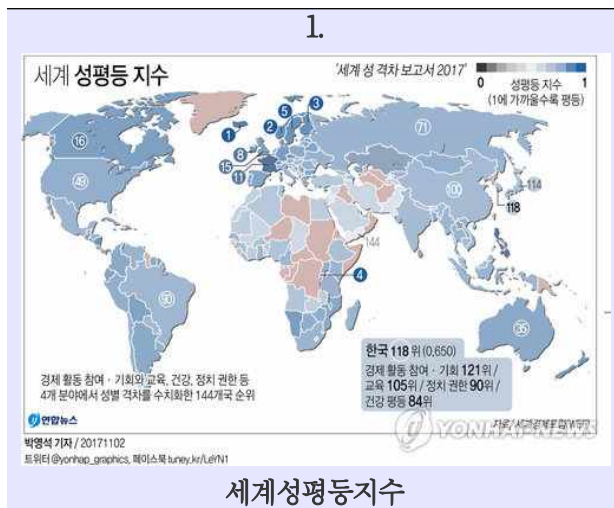
(2) 세계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

두 번째 질문 “세계인권 문제는 어떤 양상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는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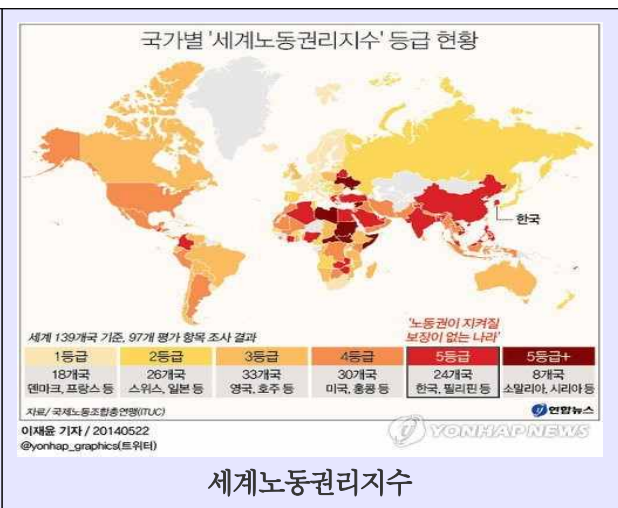
발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는 극단적인 사례 뿐 아니라 차별과 박해 그리고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의 사례로는 독재 국가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 기아문제,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 이유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종 차별, 소수민족 박해 문제, 종교 박해 문제 등 인권 문제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기구들은 국가별 인권 보장 실태와 그 변동 상황을 비교하고자 정기적으로 다양한 인권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인권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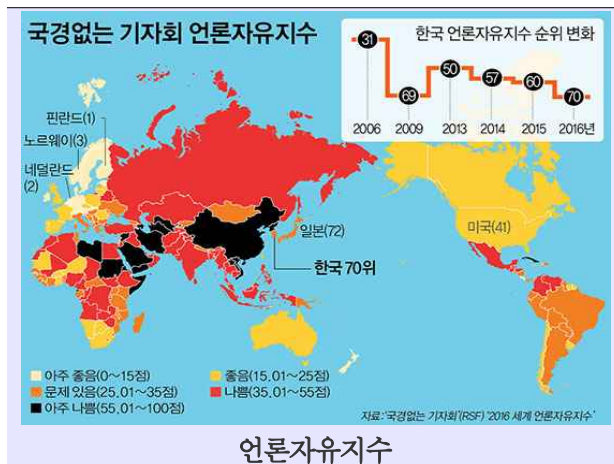
세계성평등지수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각국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성 격차 지수를 발표한다. 성 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세계노동권리지수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조사하는 국제 노동권리지수는, 국제노동 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지표를 바탕으로 141개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 정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언론자유지수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의 자유 점수를 집계하여 매년 각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는 지수이다.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설문 항목으로 측정한다.



세계자유지수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등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매해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법, 정치, 경제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기준으로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의 수준을 7개 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수준에 대한 등급의 평균을 산출하여 나타낸다.
--	--

인권지수를 통해 세계인권문제의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국의 의지가 약한 경우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연합은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거나 관련 선언과 조약을 만들기도 하며, 해당 국가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 사면위원회,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기구들도 정치적 박해의 방지, 전쟁 및 기아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